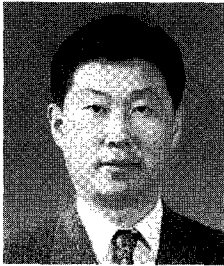


수출지향적인 정책제안으로 발전 계기 마련...



김 홍 국
(사)한국계육협회장

월간양계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월간양계의 지난 30년은 우리나라 상업양계 역사와 같으며 그 동안 업계에 다양한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양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인 21세기가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글모별경제시대로서 지난 30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변화가 심하고 경쟁 역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에도 우리 양계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 양계산업의 모습을 그려보면 우선 그 동안의 단순한 생산위주(Agriculture)에서 생산, 수집, 가공, 유통, 무역, 설비 등 연관산업을 모두 포함하는 식품산업(Agribusiness)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농축산물의 60% 이상을 식음료화하여 공급하고 있고 가정의 주방크기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 그 만큼 식품공장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민의 정의 역시 그 동안 단순 육체 노동자에서 현대농업이 설비집약적인 대량생산체제로 발전하면서 엔지니어로 바뀌고 있다.

특히 21세기에는 농업시장의 중심이 미국, 호주 등 땅이 넓은 지역에서 주변에 좋은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한국 등으로의 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처럼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축산물, 화훼를 중심으로 한 농축산물을 독일을 비롯한 EU시장에 수출하여 연간 150억 달러의 농업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최대 농축산물 수입국가인 일본과 21세기 최대 소비시장이 될 중국을 지척에 두고 있으므로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경쟁력 있는 품목위주로 수출지향적인 정책을 펴게 되면 네덜란드 이상의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우리 양계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조속히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하며 월간양계가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혜를 제공하는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양계